

축 사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한국 근대기의 고승으로 큰 업적을 내신 백용성 대종사의 공덕을 기리고 스님의 자취를 집대성한 『백용성 대종사 총서』를 발간하게 되어 공경과 더불어 축하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불교마저도 일본불교의 침투에 의해서 파탄의 지경에 처하여 있을 때에, 스님께서는 한국불교의 전통과 정통을 수호하기 위해 분투하신 명실상부한 민족의 지도자이셨습니다.

치열한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다다른 후에도 산중에 머물지 않고 대중들이 고통에 처한 현장으로 내려오셔서, 민초의 삶을 떠나지 않고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길을 무소의 뿔처럼 걸어가신 거룩하신 스님이셨습니다.

도회지에서 선포교와 대중강연을 하시면서 3.1운동 당시에는 민족대표로 우뚝 서신 선각자이셨으며, 수감과 출옥을 거듭하는 동안에도 대중을 위한 역경의 원력을 세우시고, 다양한 저술 작업과 역경활동을 씁없이 펼치셨습니다.

1941년, 원적에 드신 그날까지 선학원의 창건, 만일참선결사회의 개설, 대처식육 반대를 위한 건백서 제출, 국내외에서의 참신한 포교활동, 선농일치의 실천 등 다양한 행적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시대까지 고스란히 향기로운 스님의 자취는 불교를 넘어 민족의 희망이었으며 지금 우리는 고맙게도 그 희망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8.15 해방 이후, 불교계는 스님의 이념과 지성을 재인식하면서 불교를 바르게 정립하려는 정화운동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화불사로 인해 대한불교조계종이 정립될 수 있었으며, 법손들이 종정 그리고 총무원장과 포교원장 등을 다수 역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종단의 역사에서 스님의 덕화와 공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대한 역사와 사상을 갖고 있었던 백용성 대종사의 기록을 집약

하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출간하게 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는 않지만, 21세기 불교 및 조계종단의 미래를 조망함에 시금석의 자료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불사를 추진한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의 노고에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마침 우리 종단은 근현대 고승들의 자료에 대한 수집 및 연구, 분석 및 재평가, 문화재 등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근현대 고승의 수행 및 사상을 조계종사에 반영시킬 예정에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백용성 대종사 총서』는 많은 시사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백용성 대종사 총서』 발간이라는 대작불사를 성취하신 대각회 이사장이신 혜총스님과, 진행의 총책임을 맡으신 대각사상 연구원장이자 동국대 총장이신 보광스님의 헌신과 열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밖에 기념비적인 이 불사에 참여하신 관계사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대각회는 종단의 구성원이면서도 특별한 관계에 있기에, 더욱 더 진일보하고 원융적인 측면에서 불교발전에 함께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대작불사가 원만 회향되었음을 거듭 축하드리며, 오늘의 성취가 불교를 넘어 우리 사회를 환하게 밝혀주는 지혜의 등불이 되어주기를 기원합니다.